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경제·정치적 화두 일제히 특집으로 다뤄

창작과비평 || 당대비평 || 황해문화 || 문학과사회 || 실천문학

계간지 여름호들이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고 일제히 출간되었다. 각 계간지가 마련한 특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경제·정치(외교)적 화두를 중심 테마로 상정해 진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독자들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의 지점을 헤아리고 나아갈 방향을 예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과비평〉

은 특집에서 노무현 정부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특집의 기획자는 새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취지를 "미국경제의 침체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정황과 한반도의 유리한 지경학地經學적 위치를 감안할 때 일단 수긍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구상이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고 우리의 경제적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정은 교수(미시건대)는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이라는 글에서 한국에는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즉 금융·재정적 측면과 관련해 서울이 전 지구적 도시가 될 것을 요구하는 거울, 운송과 물류에 대한 관심이 결국 중국 중심주의를 낳게 하여 한국이 중화질서와 유사한 질서체계에 놓일 것이라는 거울, 그리고 생동하는 민주적 문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만들어내는 거울이 놓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 세 가지 거울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합되어 전체상을 보이면서 한국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원배 교수(동아대)는 〈동북아중심 구상의 재검토〉라는 글을 통해 한국이 가진 "지경학적 잇점을 살리는 길은 세계 여러 나라와 동북아국가들의 사람과 문화를 포용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 "개방적 문화를 기초로 한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만이 중소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연성적 힘에 근거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한다.



〈당대비평〉

발행처를 생각의나무로 바꾸고 두 번째 선보이는 역시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정부', 그 간격에 대하여〉

리는 시의적 특집을 마련,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그것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윤평중 교수(한신대)는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책임정치-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윤리의 변증법적 긴장 관계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 내용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은 "최근 주변부 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보여주듯이 한국 시민의 정의定義와 경계 자체가 크게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출현은 문명정부나 국민의 정부조차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전환기의 과도제적 권위주의까지를 탈색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진단한다. 윤 교수에 의하면 현재 제도 정치권의 재편을 둘러싼 진통과 혼란에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집 외에도 당대비평은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 홀거 하이데 교수(브레멘대)의 특별기고 〈노동중독에서 탈출하기-노동조합은 노동중독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게재해 21세기 한국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핀다.



지령 39호를 맞은 〈황해문화〉 역시 묵직한 특집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의 진보, 새로운 가치와 양식을 찾아서〉가 그것인데,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위상이 한층 제고된 한국 진보세력의 나아갈 지점과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내실 있는 고민을 담고 있는 글들을 실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 보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은 ‘진보’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행동)양식을 모색”하기 위함이 편집위원들이 밝히는 특집의 변이다. 문학평론가 조정환 씨는 〈진보란 무엇인가-척도의 시간에서 구성의 시간으로〉에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이제까지의 진보는 곧 파괴이자 퇴보의 다른 말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이제까지의 진보가 다중의 구성력과 활력에 연속성이라는 척도를 부과하고 착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중의 힘이 이러한 척도부과적 행위를 거부하고 자기해방의 길을 가는 것이 진보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대선 이후 개혁세력과 일정한 선을 긋고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노무현 시대의 진보’라는 글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자마자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한계와 그 지지세력의 실망스런 태도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그간의 ‘반수구연대’라는 허구적 전선을 본격적인 ‘보수-진보’의 대립전선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화되고 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특집이다.



〈문학과사회〉가 마련한 특집 역시 현재적인 의미를 띠는 정치적 담론에서 추출되었다. ‘국가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특집은 “이 시대의 국가와 국가주의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것이 문화와 문학 안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성찰”하고 있다. 이종은 교수(국민대)는 〈민족과 국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글에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정리를 시도하고 그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변개, 발전했는지를 살핀다. 그는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발원한 시기를 19세기 중엽이후로 상정한다. “외세, 특히 일본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인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기확인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의식이 강렬하게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어 게재된 문학평론가 최성실 씨의 글 〈국가주의라는 괴물과 성정치학〉은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국가주의의 문제를 ‘국가주의와 젠더’라는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여, 국가주의가 여성을 왜곡하는 문학적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로 흥미로운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천문학〉 특집은 〈이라크전쟁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이라크전쟁 이후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구춘권 교수(서강대)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라크 전쟁〉이라는 글을 통해 부시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더욱 표면화되었으며 “지난 3년 동안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세계정치의 현실로 정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구 세계질서의 해체와 변화의 직접적 결과”라고 설명하고 “소련이라는 대항권력이 소멸한 공백을 미국의 패권주의가 채우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잠식되면서 동의를 기초했던 다자주의로부터 힘에 의존한 일방주의로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연철 교수(고려대)의 〈이라크 전쟁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이라는 글은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 파급시킬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전환기’ 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내부의 탈냉전 지향의 동력”이라고 지적하고 탈냉전 세력이 스스로 다수파가 되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김도연 기자**

